제57호(2018. 12. 27)

2018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변재권

목 차
contents

1. 한·영연방 FTA 농축산물 교역 동향 ····· 1

2.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과 TRQ/ASG 이행실적 ····· 11

3.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통관가격 분석 ····· 17

4. 요약 및 시사점 ·····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061-820-2343	shpark@krei.re.kr
내용 문의	이현근 전문연구원	061-820-2344	hklee@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57호

2018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1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 약
Summary

○ **한·영연방 FTA는 국가별로 호주는 이행 5년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행 4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출입 규모는 호주와의 교역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

-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은 345억 달러로 전년보다 7.1% 증가한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1.8% 감소한 46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2.7억 달러

○ **다수의 FTA 이행과 해당 국가별 작황에 따라서 주요 품목별로 수입창출 또는 협정 체결국간 수입전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음.**

- 영연방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미국산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2.6%p 하락, 치즈 수입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U산 수입 증가로 시장점유율은 정체
- 영연방산 키위는 뉴질랜드의 작황호조와 품종개량 등으로 수입량과 함께 점유율 증가, 아보카도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산과 멕시코산 수입 증가로 시장점유율은 감소

○ **FTA 이행연차가 지날수록 협정관세율 인하폭이 커져 영연방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매년 높아지고 TRQ 기준물량의 점진적인 증량으로 국내 시장접근성이 더욱 확대**

- 영연방산 주요 축산물의 통관가격 인하효과는 8.3~16.4% , 주요 과일은 9.2~33.3% 수준으로 전년보다 확대
- TRQ 기준물량의 대부분이 소진되어 무관세를 이용한 국내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는 반면, 급격한 수입증가 시 적용되는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의 발동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

※ 2018년 11월 말 현재 호주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돼지고기(냉장삼겹/목살)는 ASG 물량을 초과

○ **2018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92.9%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5.1%로 상승 추세**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입규모가 큰 혼합조제식료품 등의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에 따라 소폭 감소했고, 對호주/뉴질랜드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가한 반면 對캐나다는 감소

○ **한·영연방 FTA 이행으로 시장 개방 수준이 높아져 수입전환을 비롯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농가 및 농업부문 피해에 대비할 필요**

01 한·영연방 FTA 농축산물 교역 동향[1)]

2018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평년 대비 3.3% 증가한 46.6억 달러, 대영연방 수출액은 평년 대비 52.2% 증가한 2.7억 달러

1.1. 한·영연방 농축산물 교역 개황

□ 2018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2010~2014년) 대비 3.3% 증가한 46.6억 달러, 대영연방 국가로의 수출액은 평년 대비 52.2% 증가한 2.7억 달러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됨.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1년 54.2억 달러에서 2015년 41.2억 달러까지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46.6억 달러로 다시 증가함.
-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2011년 18.0%에서 2018년에 13.3%로 4.7%p 감소함.

〈표 1〉 한·영연방 국가별 농축산물 교역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영연방 전체	3,966	5,423	4,817	4,251	4,460	4,119	4,345	4,743	4,659	3.3	-1.8
	호주	2,100	2,718	2,785	2,348	2,481	2,421	2,594	2,818	2,589	2.9	-8.1
	캐나다	1,024	1,653	1,120	960	1,045	880	904	1,006	1,054	-0.9	4.8
	뉴질랜드	842	1,052	912	943	934	817	847	920	1,016	9.3	10.5
수출	영연방 전체	140	158	183	194	225	300	258	275	271	52.2	-1.5
	호주	77	82	94	97	108	152	157	171	150	64.3	-12.1
	캐나다	41	49	59	62	83	110	69	71	85	50.4	20.3
	뉴질랜드	22	26	30	35	34	39	32	34	36	19.3	6.2

주: 호주와 캐나다의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 뉴질랜드의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8년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0년 이후 연평균 8.6%씩 증가 추세이지만, 전년에 비해 1.5% 감소함.

-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5년 3.0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2018년 2.7억 달러로 감소

1) 본 장의 농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교역통계는 2,924개 HS코드를 대상으로 집계했음. 각 연도별 교역액은 연간 교역액 기준이며, 2018년의 경우 11월은 잠정치, 12월은 과거 3개년 동월 평균값을 적용하여 연간교역액을 산출함.

2018년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 대비 2.9% 증가한 25.9억 달러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영연방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2011년 2.9%에서 2015년 4.9%로 증가한 후 2018년에 4.1%로 다시 감소함.

□ 2018년 한·영연방 농축산물 수입·수출액 가운데 호주의 비중은 각각 55.6%와 55.3%

○ 2018년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 대비 각각 2.9%와 9.3% 증가한 25.9억 달러와 10.2억 달러이며, 캐나다산 수입액은 평년 대비 0.9% 감소한 10.5억 달러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0년 이후 각각 연평균 2.7%와 2.4%씩 증가했지만, 캐나다산 수입액은 2010년 이후 비교적 낮은 증가추세(0.4%)를 보임.
-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2010년 53.0%에서 2018년 55.6%로 2.6%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캐나다산(22.6%) 비중은 3.2%p 감소, 뉴질랜드산(21.8%)은 0.6%p 증가

○ 2018년 호주, 캐나다와 뉴질랜드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각각 64.3%, 50.4%와 19.3% 증가한 1.5억 달러, 8,518만 달러와 3,609만 달러
- 대호주와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0년 이후 각각 연평균 8.7%와 6.3%의 비교적 높은 증가추세이지만, 대캐나다 수출액은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대호주와 대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은 2010년 각각 55.0%와 29.1%에서 2018년 55.3%와 31.4%로 증가했지만, 대뉴질랜드(13.3%) 수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2.6%p 감소

1.2. 한·영연방 국가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

1.2.1. 한·호주 FTA

□ 한·호주 FTA 이행 5년차(2018년)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5.9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2010~2014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축산물과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증가

○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 대비 호주산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8.4%에서 이행 5년차 7.4%로 감소
- 한·호주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FTA 발효 시점부터 악화되다 2018년 호주산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평년 수준으로 개선

○ 2018년 호주산 과일·채소 수입액은 체리, 오렌지, 망고와 포도 등 관세율이 철폐되거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된 신선 과일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69.0% 증가

- 체리(112만 달러), 오렌지(606만 달러), 포도(232만 달러), 망고(66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470.5%, 350.5%, 4,356.2%, 789.4% 증가

※ 관세율 즉시철폐: 체리(24%→0), 수입금지 제외: 포도(2013. 12.), 체리·오렌지·레몬·망고(2012. 1.)
※ 품목별 수입량: 체리(18톤→ 117), 오렌지(858톤→ 3,219), 포도(12톤→ 782), 망고(9톤→ 104)

〈표 2〉 호주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년차 (2015)	3년차 (2016)	4년차 (2017)	5년차 (2018)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2,100	2,718	2,785	2,348	2,481	2,421	2,594	2,818	2,589	2.9	-8.1
쇠고기	634	849	753	836	943	1,088	1,096	1,052	1,128	38.8	7.3
사탕수수당	639	481	523	376	367	399	635	739	437	-5.0	-40.9
밀	254	634	699	372	351	312	268	269	297	-34.4	10.5
면양고기	14	19	21	20	32	41	55	99	116	471.7	16.8
보리	54	95	100	88	104	104	58	71	67	-29.6	-6.8
사료용근채류	33	41	50	57	58	53	47	66	59	20.1	-10.5
루핀종자	68	27	96	29	88	27	29	42	47	-22.7	11.8
치즈	35	33	33	27	27	33	28	41	41	30.4	-1.6
혼합조제식료품	18	26	26	21	20	19	22	25	30	35.9	21.0
배합사료	1	1	4	4	8	13	18	14	29	803.0	103.1
양장	10	11	16	20	20	17	13	17	24	56.0	41.5
기타 축산조제품	22	34	18	12	15	14	14	17	20	8.8	16.0
옥수수	12	22	29	28	25	22	12	19	19	-23.3	0.1
당밀	18	11	7	17	10	22	37	52	18	44.6	-65.3
탈지분유	14	27	20	22	22	18	11	13	14	-35.7	5.9
포도주	7	8	8	7	8	9	10	12	13	69.3	5.6
마카다미아너트	1	2	3	3	4	9	10	12	13	374.3	7.1
감자	5	10	10	9	4	11	13	11	12	54.0	9.4
우지	14	16	20	11	13	13	7	10	11	-26.2	9.8
산양고기	2	4	4	4	8	8	9	13	10	143.7	-17.1
유채유	35	37	32	33	38	11	14	12	10	-71.1	-17.3
쌀	0	0	0	22	29	14	14	6	10	33.7	60.4
개 사료	11	12	11	12	10	9	10	10	10	-13.8	2.5
오렌지	1	2	3	2	1	3	4	5	6	350.5	27.8
밀크·크림	5	9	5	6	5	3	4	5	6	3.1	15.7

주 1) 한·호주 FTA는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2014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FTA 발효 전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8년 호주산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양고기, 치즈, 로열제리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1.3% 증가

- 쇠고기(11.3억 달러), 면양고기(1.2억 달러), 산양고기(1,036만 달러), 치즈(4,071만 달러), 로열제리(519만 달러)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8.8%, 471.7%, 143.7%, 30.4%, 459.1% 증가

※ 품목별 수입량: 쇠고기(16.4만 톤→19.7), 치즈(6,892톤→ 9,590), 양고기(4,521톤→ 1.6만 톤)

2018년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64.3% 증가한 1.5억 달러

○ 2018년 호주산 가공식품 수입액은 사탕수수당, 유채유, 면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3.4% 감소

- 사탕수수당(4.4억 달러), 유채유(1,010만 달러), 면(370만 달러)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5.0%, 71.1%, 96.8% 감소

○ 2018년 호주산 곡물 수입액은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1.9% 감소

- 밀(3.0억 달러), 보리(6,657만 달러), 옥수수(1,931만 달러), 대두(132만 달러)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4.4%, 29.6%, 23.3%, 70.3% 감소

□ 한·호주 FTA 이행 5년차(2018년)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1.5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2010~2014년) 대비 64.3% 증가했으며, 축산물,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수출액 증가

○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증가추세이며, 수출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1.6%에서 이행 5년차 2.3%로 증가

○ 2018년 대호주 가공식품 수출액은 라면,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기타베이커리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68.1% 증가

- 라면(1,867만 달러), 혼합조제식료품(1,400만 달러), 커피조제품(1,072만 달러), 기타베이커리제품(973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72.0%, 340.1%, 27.0%, 151.5% 증가

○ 2018년 대호주 과일·채소 수출액은 버섯류, 김치, 신선 배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5.0% 증가

- 느타리버섯(372만 달러), 팽이버섯(321만 달러), 김치(306만 달러), 신선 배(60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72%, 88.5%, 115.4%, 272.8% 증가

○ 2018년 대호주 축산물 수출액은 젤라틴,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14.7% 증가

- 젤라틴(775만 달러), 돼지고기(27만 달러), 닭고기(26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06.9%, 15.9%, 200.4% 증가

〈표 3〉 대호주 주요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년차 (2015)	3년차 (2016)	4년차 (2017)	5년차 (2018)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76,932	82,314	93,789	97,477	108,239	151,566	157,246	170,582	149,871	64.3	-12.1
라면	9,982	10,576	11,443	11,289	10,705	11,774	12,843	16,372	18,672	72.0	14.0
혼합조제식료품	1,585	2,233	3,319	3,994	6,278	4,788	9,999	7,938	14,002	340.1	76.4
커피조제품	8,880	11,280	8,909	7,529	5,828	4,500	1,689	9,321	10,716	27.0	15.0
기타베이커리제품	2,058	2,499	3,759	5,350	6,013	5,595	8,262	8,413	9,730	151.5	15.7
곡류조제품	6,869	4,481	2,230	2,337	3,321	3,907	5,954	6,973	7,856	132.5	12.7
젤라틴	1,747	1,671	2,299	2,834	1,270	5,203	4,490	4,926	7,754	306.9	57.4
기타음료	2,466	3,734	4,015	4,670	4,630	4,382	4,398	4,809	5,978	44.9	24.3
기타당	171	260	189	168	320	361	4,287	1,032	5,390	-	422.3
궐련	1,247	1,065	3,059	5,161	13,797	57,290	51,761	51,909	4,997	58.3	-90.4
비스킷	4,601	5,609	5,117	3,404	4,399	3,040	3,650	3,530	3,942	-16.2	11.7
기타소스제품	698	1,236	1,759	2,397	2,380	2,842	2,938	3,938	3,900	117.7	-1.0
느타리버섯	1,075	707	1,306	1,723	1,973	2,342	2,680	3,187	3,722	172.0	16.8
팽이버섯	1,535	1,456	1,639	1,928	2,135	2,250	2,468	2,933	3,206	88.5	9.3
김치	1,132	1,162	1,451	1,651	2,051	2,273	2,059	2,547	3,061	115.4	20.2
코코아분말	1,670	1,782	1,306	1,496	1,203	1,489	1,311	1,685	2,647	77.6	57.1
기타파스타	3,144	2,364	1,784	2,212	1,308	1,724	2,240	2,121	2,508	18.3	18.3
캔디	739	761	1,293	2,149	2,339	2,078	2,033	2,355	2,276	62.5	-3.3
발효유	1,623	1,677	2,200	2,503	2,979	3,711	3,301	2,835	2,145	0.9	-24.3
맥주	709	1,084	2,921	3,044	3,290	2,676	2,523	2,253	2,125	-9.5	-5.7
기타조제식료품	130	177	544	630	990	1,065	1,296	1,555	1,683	273.5	8.2
국수	1,167	1,873	1,165	1,187	1,344	1,287	1,473	1,632	1,670	35.5	2.3
소주	1,369	1,101	1,028	1,429	1,164	1,044	1,378	1,595	1,637	35.1	2.6
마요네즈	276	488	905	996	1,212	1,364	1,114	972	1,411	77.2	45.1
기타채소	653	994	1,599	726	820	1,056	1,017	1,070	1,327	56.6	24.0
고추장	780	829	1,183	1,095	1,173	1,133	1,303	1,215	1,253	21.3	3.2

주 1) 한·호주 FTA는 '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14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FTA 발효 전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2.2. 한 · 캐나다 FTA

□ 한·캐나다 FTA 이행 4년차(2018년)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5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2010~2014년) 대비 0.9% 감소했으며, 곡류, 과일·채소, 축산물과 임산물 수입액 감소

○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3.5%에서 이행 4년차 3.0%로 감소

- 한·캐나다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011년 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차츰 호전되다가 FTA 발효 이후부터 수입이 증가해 다시 악화추세

○ 2018년 캐나다산 곡물 수입액은 밀, 보리, 겨자씨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6.5% 감소

- 밀(5,789만 달러), 보리(1,686만 달러), 겨자씨(147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63.2%, 18.6%, 5.8% 감소

2018년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 대비 0.9% 감소한 10.5억 달러

〈표 4〉 캐나다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1년차 (2015)	2년차 (2016)	3년차 (2017)	4년차 (2018)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1,024	1,653	1,120	960	1,045	880	904	1,006	1,054	-0.9	4.8
돼지고기	101	224	141	80	82	94	90	105	122	12.8	16.9
유채유	32	106	78	41	56	68	84	105	102	75.3	-2.7
혼합조제식료품	16	28	26	27	29	38	42	52	60	123.3	16.8
밀	186	493	123	84	163	68	40	67	58	-63.2	-13.8
감자	4	7	2	2	5	10	17	20	22	499.9	9.9
쇠고기	0	0	7	11	14	8	23	28	19	224.0	-32.0
보리	11	16	27	19	27	19	15	21	17	-18.6	-18.8
개 사료	1	1	2	4	6	8	12	15	15	523.3	4.1
사료용근채류	0	4	10	7	7	7	5	13	11	77.9	-15.3
대두	2	10	8	18	8	9	15	10	10	14.0	-2.1
귀리	0	1	1	1	6	6	5	4	9	841.9	111.5
대두유	0	0	0	0	0	0	0	5	8	-	53.0
유장	19	21	16	18	12	5	7	8	7	-63.5	-17.9
양조박	0	0	1	5	8	5	4	3	5	178.7	65.3
강낭콩	2	3	3	3	3	3	3	5	4	29.5	-26.0
초콜릿	2	2	1	1	3	3	5	2	4	107.8	82.1
기타사료용조제품	3	3	2	2	3	3	2	3	4	44.0	41.2
기타채유종실	0	0	0	0	0	0	42	11	3	-	-74.2
기타유지가공품	1	1	1	1	1	2	2	3	2	77.9	-20.4
위스키	1	0	0	0	0	0	2	2	2	674.9	23.6
우지	24	20	5	3	0	0	0	0	2	-80.1	-
돼지	2	13	7	1	2	2	3	5	2	-53.0	-60.6
기타과실	3	7	8	7	4	5	7	2	2	-70.4	-16.4
커피	0	1	1	0	1	2	2	2	2	190.5	-29.3
기타식물성액즙	1	0	1	1	1	2	1	1	2	71.6	55.0

주: FTA 발효 전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8년 캐나다산 가공식품 수입액은 유채유, 혼합조제식료품, 사료, 대두유, 초코렛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86.1% 증가

- 유채유(1.0억 달러), 혼합조제식료품(6,024만 달러), 개(고양이) 사료(1,538만 달러), 대두유(755만 달러), 초콜릿(376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75.3%, 123.3%, 523.3%, 10,616.8%, 107.8% 증가

○ 2018년 캐나다산 축산물 수입액은 유장과 우지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3% 감소

- 유장(659만 달러)과 우지(188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63.5%와 80.1% 감소

2018년 대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50.4% 증가한 8,518달러

□ 한·캐나다 FTA 이행 4년차(2018년) 대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8,518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2010~2014년) 대비 50.4% 증가했으며, 과일·채소, 가공식품, 곡류, 축산물 수출액 증가

○ 대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첫 해 크게 증가한 뒤 발효 전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행 4년차 수출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0.3%p 증가한 1.3%

〈표 5〉 대캐나다 주요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1년차 (2015)	2년차 (2016)	3년차 (2017)	4년차 (2018)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40,680	49,061	59,090	61,702	82,876	110,005	68,829	70,825	85,181	50.4	20.3
라면	4,164	4,638	4,934	5,962	6,360	5,888	6,973	9,499	8,799	69.9	-7.4
커피조제품	343	335	618	679	706	592	495	742	6,360	1,063.5	757.1
기타음료	2,423	3,359	4,269	3,705	3,632	3,950	4,271	4,301	4,694	31.7	9.1
비스킷	2,877	2,992	2,509	2,561	2,513	2,247	3,131	3,950	4,603	73.7	16.5
인스턴트면	180	779	2,830	2,723	3,208	3,165	3,091	3,460	3,763	78.3	8.8
기타베이커리제품	813	1,069	1,507	2,044	2,048	2,604	3,289	3,708	3,472	125.5	-6.3
느타리버섯	817	1,131	1,803	2,219	1,931	1,934	2,353	2,625	2,840	75.1	8.2
혼합조제식료품	2,289	3,032	8,379	9,085	26,471	58,051	10,184	2,572	2,783	-59.3	8.2
기타소스제품	476	659	976	1,314	1,599	1,806	1,814	2,094	2,460	150.3	17.5
김치	715	1,132	1,264	1,272	1,457	1,346	1,152	1,632	2,255	84.4	38.1
팽이버섯	868	959	1,234	1,291	1,255	1,465	1,829	1,968	2,232	94.2	13.4
기타조제식료품	164	393	495	563	1,008	1,166	1,335	1,790	2,188	352.1	22.2
홍삼	321	803	1,089	1,757	3,055	1,291	1,243	1,710	2,159	77.5	26.3
기타파스타	2,267	2,420	1,535	1,835	1,807	1,698	1,880	1,669	1,888	-4.2	13.1
국수	2,206	2,222	1,419	1,411	1,560	2,057	2,450	1,756	1,788	3.4	1.8
고추장	662	682	1,064	1,429	1,557	1,453	1,417	1,538	1,772	67.4	15.2
소주	582	597	631	661	772	868	913	1,028	1,271	101.8	23.6
기타채소	550	511	678	708	725	836	900	1,008	1,231	90.8	22.2
배	1,211	1,092	706	782	980	921	1,067	1,002	1,218	28.0	21.6
기타버섯	224	252	519	733	707	801	979	1,183	1,187	140.8	0.3
펩톤	43	264	2	0	2	15	68	324	1,181	7,306.2	264.8
간장	373	231	346	538	415	498	570	664	1,083	186.7	63.1
곡류조제품	1,891	2,004	1,826	1,748	1,439	653	506	734	923	-49.4	25.6
고추	468	440	716	644	766	748	792	687	916	50.3	33.3
감	972	1,308	1,897	1,211	1,653	1,171	771	580	887	-36.2	53.0

주: FTA 발효 전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8년 대캐나다 과일·채소 수출액은 버섯류, 김치, 배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52.1% 증가

- 느타리버섯(284만 달러), 팽이버섯(223만 달러), 김치(226만 달러), 배(122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75.1%, 94.2%, 84.4%, 28.0% 증가

2018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 대비 9.3% 증가한 10.2억 달러

○ 2018년 대캐나다 가공식품 수출액은 라면, 커피, 기타 음료,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52.9% 증가

- 라면(880만 달러), 커피(636만 달러), 기타 음료(469만 달러), 비스킷(460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69.9%, 1,063.5%, 31.7%, 73.7% 증가

1.2.3. 한 · 뉴질랜드 FTA

□ 한·뉴질랜드 FTA 이행 4년차(2018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2011~2015년) 대비 9.3% 증가했으며, 축산물, 과일·채소와 가공식품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곡류와 임산물 수입은 감소

○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3.1%에서 이행 4년차 2.9%로 0.2%p 하락

- 한·뉴질랜드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FTA 발효 시점부터 수입액이 증가에 따라 꾸준히 악화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9.8억 적자를 기록함

○ 2018년 뉴질랜드산 과일·채소 수입액은 키위, 아보카도 등 관세율이 철폐되거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된 신선 과일과 기타 과실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7.5% 증가

- 키위(8,422만 달러), 아보카도(563만 달러), 기타 과실(206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79.4%, 374.2%, 56.8% 증가

  ※ 품목별 수입량: 키위(1만 8천 톤→ 2만 9천), 아보카도(282톤→ 1,158)

○ 2018년 뉴질랜드산 가공식품 수입액은 혼합조제식료품, 개(고양이) 사료, 기타 소스제품, 포도주, 혼합주스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79.8% 증가

- 혼합조제식료품(2,535만 달러), 개(고양이) 사료(535만 달러), 기타 소스제품(432만 달러), 포도주(353만 달러), 혼합주스(69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75.0%, 381.1%, 14.7%, 116.7%, 6,282.7% 증가

○ 2018년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수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치즈, 녹용, 버터, 조제분유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8.5% 증가

- 쇠고기(1.0억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6.4% 감소, 치즈(9,337만 달러), 녹용(3,354만 달러), 버터(2,888만 달러), 조제분유(1,831만 달러)는 각각 8.4%, 130.4%, 138.4%, 22.1% 증가

2018년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9.6% 감소, 전년 대비 6.2% 증가한 3,609달러

〈표 6〉 뉴질랜드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년차 (2016)	3년차 (2017)	4년차 (2018)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842	1,052	912	943	934	817	847	920	1,016	9.3	10.5
쇠고기	120	157	119	114	120	100	112	104	110	-6.4	5.9
치즈	78	94	101	102	51	64	55	80	93	8.4	16.8
키위	49	67	55	31	43	43	51	56	84	79.4	49.6
기타 축산조제품	31	60	34	32	50	47	44	60	73	68.9	22.8
녹용	11	11	12	15	16	20	29	24	34	130.4	39.1
버터	12	22	14	11	11	9	14	19	29	138.4	55.6
혼합조제식료품	8	10	9	8	9	10	16	19	25	175.0	31.6
조제분유	13	15	14	11	16	18	16	15	18	22.1	19.9
양장	11	12	15	19	14	8	7	10	15	10.1	44.2
호박	11	14	18	14	13	14	10	12	12	-17.2	0.3
생우유	5	17	8	5	4	5	9	5	11	85.7	127.6
면양고기	2	3	3	3	3	3	5	9	10	234.6	6.0
전지분유	1	6	2	3	4	4	4	8	8	133.7	7.1
육즙	4	5	5	6	7	5	7	8	8	38.5	-1.7
기타동물성유지	0	0	1	1	2	3	4	4	6	492.6	53.0
아보카도	0	1	1	1	2	2	4	4	6	374.2	25.3
개 사료	0	0	1	1	1	2	3	4	5	381.1	25.2
채소종자	1	3	5	8	9	6	6	8	5	-17.0	-30.1
펩톤	2	6	9	7	8	7	7	6	5	-39.3	-22.3
기타소스제품	3	4	3	4	4	4	4	5	4	14.7	-7.9
면양원피	12	14	17	17	22	11	6	4	4	-74.8	-7.3
탈지분유	2	8	1	5	2	2	3	4	4	27.2	-15.5
꿀	1	2	3	3	2	2	2	2	4	52.6	101.4
포도주	1	1	1	2	2	2	2	3	4	116.7	32.8
기타과실	1	1	2	1	2	1	2	2	2	56.8	17.9

주 1) 한·뉴질랜드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2015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FTA 발효 전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뉴질랜드 FTA 이행 4년차(2018년)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3,609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2011~2015년) 대비 9.6% 증가했으며, 과일·채소,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액 증가

○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이행 4년차수출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과 비슷(0.5%)

○ 2018년 대뉴질랜드 가공식품 수출액은 혼합조제식품, 커피, 맥주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7% 감소

- 혼합조제식품(59만 달러), 커피(57만 달러), 맥주(26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27.4%, 91.6%, 37.3% 증가

〈표 7〉 대뉴질랜드 주요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년차 (2016)	3년차 (2017)	4년차 (2018)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22,186	26,492	29,902	34,541	34,377	38,559	32,393	33,971	36,087	9.6	6.2
젤라틴	4,596	4,784	7,111	9,514	6,363	12,254	6,203	4,903	10,055	31.2	105.1
라면	2,825	2,821	2,620	2,805	3,207	3,181	3,604	4,478	4,426	50.8	-1.1
기타베이커리제품	726	1,361	1,486	1,638	1,868	2,228	2,115	2,182	2,245	34.9	2.9
기타음료	662	818	1,080	1,205	1,545	1,661	1,604	1,649	2,033	59.2	23.3
단일과실조제품	254	264	282	356	853	1,709	1,537	1,830	1,429	187.4	-21.9
비스킷	996	772	784	999	855	901	1,693	1,325	1,419	67.6	7.1
곡류조제품	756	726	676	505	767	470	740	1,044	1,117	75.7	7.0
김치	796	812	715	795	847	773	1,208	1,313	1,071	34.9	-18.4
기타파스타	713	756	451	651	532	654	744	852	963	57.2	13.0
아이스크림	384	464	548	669	563	526	552	618	738	35.3	19.5
혼합조제식료품	344	1,024	842	930	652	672	669	723	592	-27.4	-18.1
커피조제품	3,870	6,280	7,052	7,124	7,751	4,234	739	534	575	-91.6	7.5
인스턴트면	140	218	689	715	264	314	255	252	543	28.6	115.6
국수	681	644	312	129	324	255	328	298	542	82.5	82.0
소주	297	263	169	113	130	271	345	443	476	154.3	7.5
기타당	75	312	209	87	515	337	274	348	417	45.9	20.1
기타소스제품	206	246	353	362	318	327	366	320	411	23.8	28.7
간장	219	218	268	299	300	364	315	350	356	23.0	1.6
기타 가구	17	44	53	101	166	240	315	170	337	215.4	98.0
고추장	197	215	245	286	248	308	284	325	321	23.6	-1.3
물	142	193	160	214	329	274	223	234	289	27.2	23.4
펩톤	0	1	2	15	50	134	77	202	280	1,149.8	39.0
맥주	67	68	348	451	567	426	143	185	256	-37.3	38.1
동물의 건과 근	0	0	218	393	200	38	176	224	227	49.2	1.4
기타조제식료품	54	22	30	67	143	127	188	173	218	193.4	26.1

주 1) 한·뉴질랜드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2015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FTA 발효 전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8년 대뉴질랜드 과일·채소 수출액은 김치, 신선 배, 신선 포도, 고추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86.2% 증가

- 김치(107만 달러), 신선 배(22만 달러), 신선 포도(19만 달러), 고추(12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4.9%, 14.6%, 103.6%, 22.5% 증가

○ 2018년 대뉴질랜드 축산물 수출액은 젤라틴, 발효유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0.3% 증가

- 젤라틴(1,005만 달러), 발효유(21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1.2%, 57.3% 증가

02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과 TRQ/ASG 이행실적

2018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92.9%,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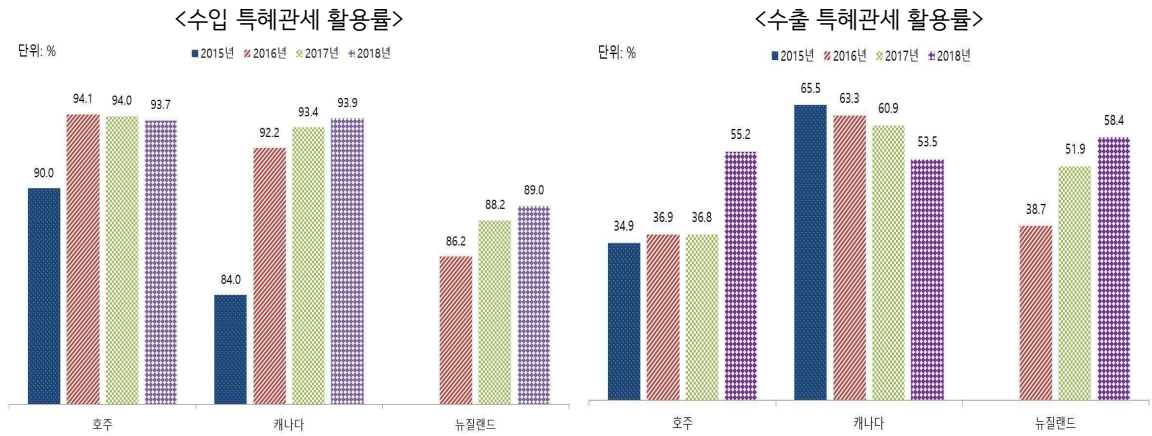
2.1.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율 활용 현황[2)]

□ **2018년 영연방 전체 국가로부터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3)]은 92.9%로 전년과 비슷(△0.1%p)**

○ 2018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31.8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29.5억 달러

-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호주산이 19.8억 달러로 가장 많고,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4억 8,510만 달러와 4억 8,578만 달러
- 2018년 호주산,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93.7%, 93.9%와 89.0%

〈그림 1〉 영연방 국가별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이용해 저자 분석.

□ **영연방 전체 국가로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4)]은 2016년 44.1%, 2017년 44.9%에서 2018년 55.1%로 증가 추세**

2) 2018년도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은 2018년 1~10월 수출입액을 대상으로 하며, 영연방 국가 전체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양허대상 수출입액 합계에서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은 수출입액 합계의 비중을 의미함.

3) 'FTA 대상 품목'은 FTA 협상 결과 실제 관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을 의미하며, '특혜관세율 적용'은 수입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함.

4)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대국의 양허유형에 관계 없이 전체 수출액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은 금액의 비중을 의미함.

2018년 호주산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93.7%,
대호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5.2%

○ 2018년 대영연방 국가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2.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출액은 1.2억 달러

-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출액은 대호주가 6,832만 달러로 가장 많고, 대캐나다·뉴질랜드는 각각 3,670만 달러와 1,809만 달러
- 2018년 대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55.2%, 53.5%와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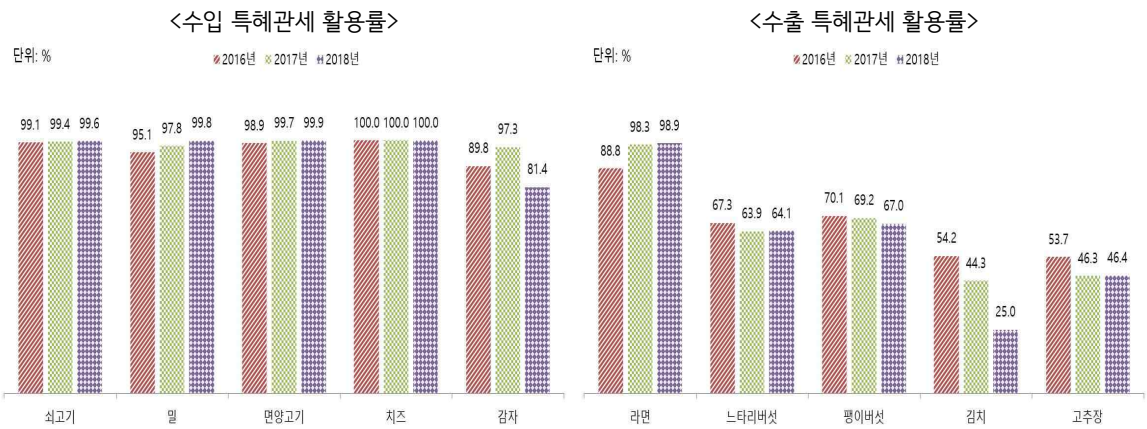
2.2. 한·호주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 2018년 호주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과 비슷(△0.2%p)한 93.7%

○ 이행 5년차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21.1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19.8억 달러

- 호주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94.1('16년) → 94.0('17년) → 93.7('18년)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쇠고기, 밀, 면양고기, 치즈와 감자 등이 있으며, 감자(81.4%)를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의 높은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그림 2〉 한·호주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이용해 저자 분석.

□ 2018년 대호주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5.2%로 전년 대비 18.3%p 증가

○ 이행 5년차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1.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은 수출액은 6,832만 달러임.

2018년 캐나다산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93.9%,
대캐나다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3.5%

- 대호주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36.9('16년) → 36.8('17년) → 55.2('17년)
- 수출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라면,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김치와 고추장 등이 있으며, 라면과 느타리버섯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과 비슷한 반면, 팽이버섯과 김치[5]는 전년 대비 각각 2.2%p와 19.3%p 감소함.
- 가공식품 중 혼합조제식료품, 기타당과 기타조제식료품의 수출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32.9%p, 11.9%p와 3.5%p 증가한 51.7%, 96.9%와 19.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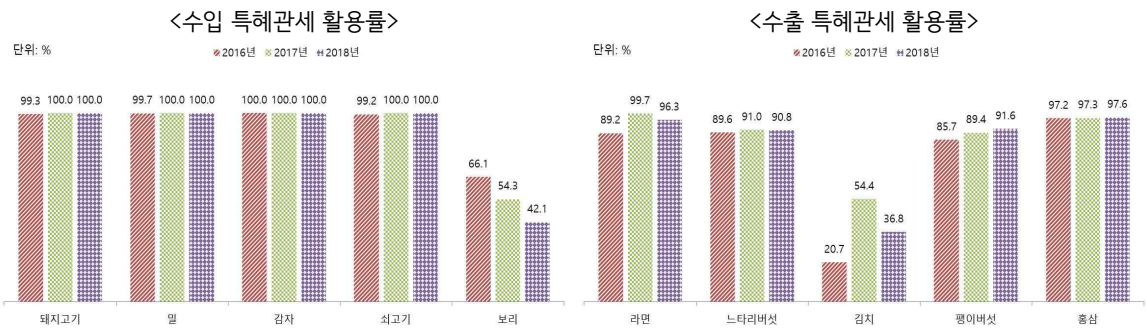
2.3. 한 · 캐나다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 2018년 캐나다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과 비슷(0.5%p)한 93.9%

○ 이행 4년차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5.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4.9억 달러

- 캐나다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92.2('16년) → 93.4('17년) → 93.9('18년)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밀, 감자, 쇠고기, 보리 등이 있으며, 보리를 제외하고 모두 100%의 높은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그림 3〉 한·캐나다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이용해 저자 분석.

□ 2018년 대캐나다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3.5%로 전년 대비 7.4%p 감소

○ 이행 4년차 대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6,854만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은 수출액은 3,670만 달러임.

5) 우리나라 김치는 호주에서 5%의 기준관세율이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2018년 뉴질랜드산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9.0%,
대뉴질랜드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8.4%

- 대캐나다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63.3('16년) → 60.9('17년) → 53.5('18년)
- 수출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라면, 느타리버섯, 김치, 팽이버섯, 홍삼 등이 있으며, 라면, 느타리버섯과 김치[6]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3.4%p, 0.2%p와 17.6%p 감소함.
- 가공식품 중 혼합조제식료품, 팽이버섯과 홍삼의 수출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2.19%p, 2.15%p와 0.3%p 증가한 54.6%, 91.6%와 97.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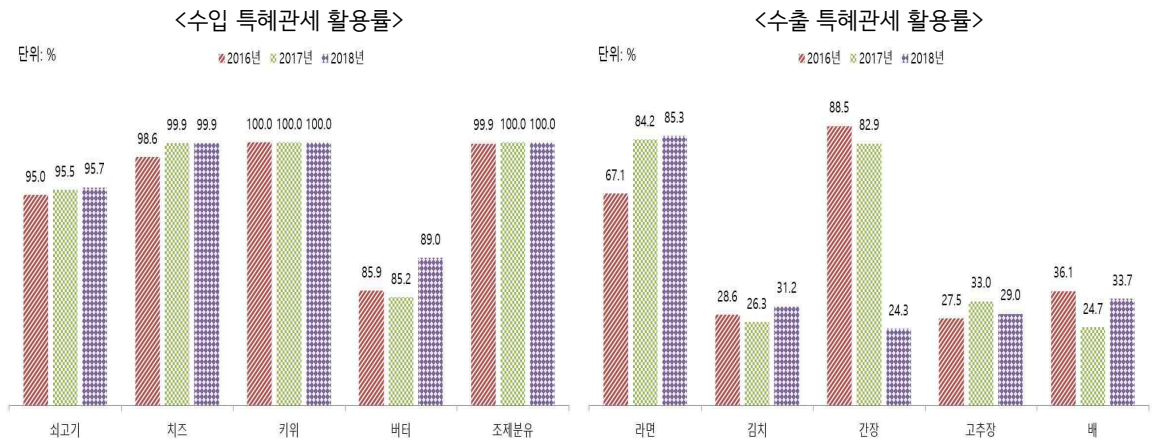
2.4. 한 · 뉴질랜드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 2018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과 비슷(0.8%p)한 89.0%

○ 이행 4년차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5.5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4.9억 달러

-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86.2('16년) → 88.2('17년) → 89.0('18년)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쇠고기, 치즈, 키위, 버터, 조제분유 등이 있으며, 대부분 80.0% 이상의 높은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그림 4〉 한·뉴질랜드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이용해 저자 분석.

6) 우리나라 김치는 캐나다에서 8%의 기준관세율이 3년에 걸쳐 철폐되어 2018년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영연방 국가별 TRQ 이행실적은 뉴질랜드가 81.2%로 가장 높고,
호주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ASG 기준물량을 초과 수입

□ 2018년 대뉴질랜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8.4%로 전년 대비 6.5%p 증가

○ 이행 4년차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3,098만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은 수출액은 1,809만 달러임.

-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38.7('16년) → 51.9('17년) → 58.4('18년)
- 수출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라면, 김치, 간장, 고추장, 배 등이 있으며, 라면, 김치와 배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1.1%p, 4.9%p와 9.0%p 증가함.
- 고추의 2018년 FTA 특혜관세율 적용 수출액은 3,014달러로 2017년까지 0%인 특혜관세 활용률이 3.2%로 증가함.

2.5. 영연방 국가별 FTA TRQ 이행실적 및 ASG 발동현황

□ 2018년 10월 현재 영연방 국가별 평균 TRQ 이행실적은 호주 71.1%, 캐나다 47.9%, 뉴질랜드 81.2%로 나타났으나, 남은 2개월 동안 이행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

○ 호주산 TRQ 품목의 경우 식용 대두와 사료용 근채류는 80% 이상의 이행실적을 보였으나, 나머지 품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이행률을 보임.

- 호주산 오렌지는 TRQ 물량이 20톤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사업성 부족으로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산 TRQ 품목의 경우 대두는 88.9%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품목의 이행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천연꿀의 경우 캐나다산 수입단가('18.1~10월 기준)는 kg당 31.5달러로 전년 대비 635.6% 상승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미국·호주·뉴질랜드·베트남산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 2018년 11월 말 현재 호주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돼지고기(냉장삼겹/목살)는 ASG 물량을 초과

○ 호주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돼지고기(냉장삼겹/목살)는 각각 10월 11일과 11월 2일에 소진되었으며, ASG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각각 40%와 22.5%의 관세율이 적용됨.

- 캐나다산 팥 수입량도 ASG 기준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표 8〉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TRQ 이행실적

구 분		기준물량(톤)				이행률(%)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2017	2018 (1~10월)
호주	버터	115	118	120	122	67.8	98.7	100.0	52.7
	치즈류	4,769	4,912	5,059	5,211	98.4	97.6	98.0	77.8
	오렌지	20	20	20	20	-	-	-	-
	맥아·맥주맥	10,200	10,404	10,612	10,824	67.4	99.7	99.2	42.1
	식용 대두	550	600	650	700	80.5	98.1	96.2	82.3
	사료용 근채류	50,000	50,000	50,000	50,000	100.0	96.6	96.4	98.3
	조제분유	484	499	514	529	100.0	99.7	77.4	73.4
	소계	-	-	-	-	73.4	84.3	81.0	71.1
캐나다	천연꿀	100	105	110	115	99.0	100.0	94.5	0.5
	보리	2,500	2,500	2,500	2,500	26.7	14.8	68.5	49.9
	맥아	13,000	14,200	15,400	16,600	75.8	99.8	88.9	-
	감자분	500	500	500	500	-	-	-	-
	대두	5,000	7,500	10,000	12,500	96.9	99.7	99.4	88.9
	사료용 근채류	20,000	25,000	30,000	35,000	66.4	52.5	67.1	35.1
	보조사료	500	600	700	700	35.4	75.9	76.0	65.3
	소계	-	-	-	-	73.44	84.34	70.6	47.9
뉴질랜드	탈·전지분유/연유	1,500	1,545	1,591	1,639	-	31.2	99.9	84.2
	버터	800	824	849	874	-	100.0	97.1	68.4
	치즈류	7,000	7,210	7,426	7,649	-	99.2	99.0	84.9
	조제분유	230	235	239	244	-	99.6	98.7	87.1
	소계	-	-	-	-	-	74.00	98.7	81.2

주: 음영처리한 부분은 각 연도별 TRQ 이행실적이 기준물량을 초과한 경우를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표 9〉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ASG 기준물량 대비 수입실적

구 분		기준물량(톤)				기준물량 대비 수입실적(%)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2017	2018 (1.1.~11.31.)
호주	쇠고기	157,676	160,829	164,046	167,327	106.3	111.7	105.2	101.8
	맥아 및 맥주보리	150,436	153,444	156,513	159,644	132.5	73.4	100.8	-
	옥수수(기타)	33,714	34,388	35,076	35,777	165.5	84.1	147.3	-
	설탕	965	984	1,004	1,024	297.4	264.1	383.9	-
캐나다	쇠고기	17,769	18,302	18,851	19,417	7.3	24.5	27.4	16.8
	돼지고기(냉장삼겹/목살)	6,818	7,091	7,374	7,669	58.4	82.0	95.8	109.5
	돼지고기(냉동삼겹)	545	567	589	613	87.0	12.0	8.0	-
	돼지고기(냉동목살)	60,986	63,425	65,962	68,601	60.1	46.3	42.4	42.3
	사과	3,600	3,708	3,819	3,934	-	-	-	-
	배	223	230	237	244	-	-	-	-
	겉보리 및 쌀보리	2,500	2,500	2,500	2,500	34.0	14.8	68.5	37.1
	감자 분·조분, 분말·플레이크, 펠리트	500	500	500	500	-	-	-	-
	팥	238	298	357	417	50.0	100.0	98.0	97.0
뉴질랜드	쇠고기	37,000	37,740	38,495	39,265	60.8	49.8	47.9	46.9

주 1) 음영처리한 부분은 해당 품목의 각 연도별 수입량이 ASG 기준물량을 초과한 경우를 나타냄.
2) 품목별 ASG 기준물량 대비 수입실적은 해당 HSCODE별 실제 수입량을 집계한 값으로, 관세청 FTA포털 협정별 물량관리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관세청 FTA포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03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통관가격 분석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 점유율은 미국산 수입량 증가로 감소추세

3.1. 주요 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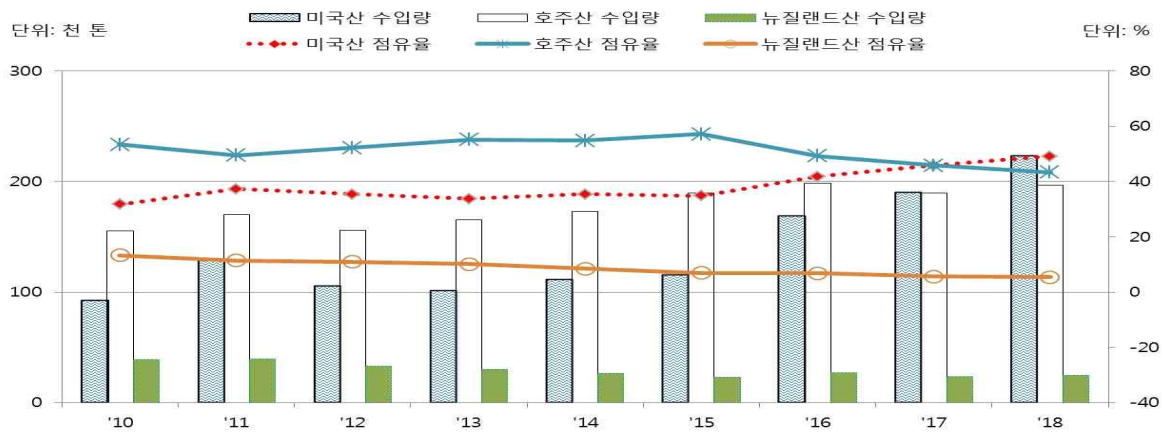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 점유율은 2015년 이후 미국산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감소추세를 보임.

○ 영연방 국가산 쇠고기 수입량은 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과 수입 냉장육 선호도 상승 등으로 평년[7] 대비 13.8%, 전년 대비 3.0% 증가한 22만 5천 톤

- 2018년 1~10월 국산 쇠고기(한우) 가격은 600kg당 638.7만 원으로 평년 대비 14.1% 상승
-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19만 7천 톤)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0.2%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2015년 57.1%를 기록한 후 미국산 수입량[8] 증가로 10.1%p 감소한 43.3%를 기록
- 뉴질랜드산 수입량(2만 5천 톤)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7.7% 감소했고, 점유율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4.4%p 하락한 5.4%임.

※ 신선·냉장·냉동(40%) 양허내용: 호주– 15년+ASG, 캐나다– 15년+ASG/양허제외, 뉴질랜드– 15년+ASG
※ 식용설육(18%) 양허내용: 호주– 15년, 캐나다– 11년, 뉴질랜드– 15년

〈그림 5〉 쇠고기 국가별 수입량 및 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8) 201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2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

2018년 면양고기 수입량은 평년 대비 286.0% 증가, 돼지고기 수입량은 평년 대비 18.3% 감소

□ 면양고기 수입량은 국내수요증가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돼지고기는 하락추세를 보임.

○ 영연방 국가산 면양고기 수입량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율 인하와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평년 대비 286.0%, 전년보다 5.0% 증가한 1만 6천 톤을 기록

- 2018년 면양고기 수입단가는 kg당 8.0달러로 평년 대비 46.9%, 전년 대비 10.4% 상승

※ 면양고기(22.5%) 양허내용: 호주 10년, 캐나다 5년, 뉴질랜드 10년 철폐

○ 돼지고기는 영연방 국가 중에서 주로 캐나다(96.4%)에서 수입되며, EU산 수입증가로 캐나다산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0.5% 감소

- 2018년 1~10월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110kg당 39.2만 원으로 평년 대비 2.7% 하락
-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61만 3천 톤)은 국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 하락과 냉동 가공육 원료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5.1% 증가
- 2018년 EU산 수입량은 30만 3천 톤으로 평년 대비 86.0% 증가

※ 냉동삼겹(25%) 양허내용: 호주– 양허 제외, 캐나다– 13년 + ASG, 뉴질랜드– 양허제외
※ 냉장삼겹/기타(22.5%) 양허내용: 호주– 10/15년, 캐나다– 13년 + ASG, 뉴질랜드– 양허제외
※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 양허내용: 호주– 7년/양허 제외, 캐나다– 5/6년, 뉴질랜드– 18년/양허제외

〈표 10〉 영연방 국가의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쇠고기	194,351 (66.7)	209,537 (60.9)	190,003 (63.6)	198,224 (65.9)	201,979 (64.1)	213,878 (64.6)	230,803 (57.2)	218,843 (52.8)	225,439 (50.2)	13.8	3.0
돼지고기	58,608 (19.2)	89,252 (17.0)	62,895 (15.6)	43,779 (13.6)	39,109 (9.9)	47,719 (9.7)	42,261 (8.4)	42,131 (7.9)	45,026 (7.5)	-18.3	6.9
치즈	28,240 (46.3)	28,159 (36.9)	31,391 (40.5)	29,632 (34.8)	15,513 (16.0)	23,691 (21.2)	24,252 (22.1)	29,713 (23.8)	32,000 (26.0)	11.6	7.7
면양고기	3,667 (100.0)	4,116 (100.0)	4,460 (100.0)	4,290 (100.0)	5,754 (100.0)	7,690 (100.0)	10,717 (100.0)	15,028 (100.0)	15,781 (100.0)	268.0	5.0
탈지분유	5,277 (67.0)	10,654 (31.8)	6,618 (35.2)	7,210 (36.6)	5,396 (25.5)	7,060 (33.2)	7,076 (34.3)	7,603 (32.8)	8,545 (34.0)	33.3	12.4
버터	5,030 (78.6)	6,930 (80.8)	5,254 (71.1)	3,727 (66.1)	2,959 (55.5)	3,345 (54.1)	5,729 (61.6)	5,193 (55.1)	5,624 (53.9)	20.4	8.3
전지분유	1,262 (92.9)	3,750 (71.0)	1,369 (84.0)	1,393 (69.4)	1,430 (68.6)	1,797 (88.3)	2,159 (61.7)	3,035 (65.6)	2,979 (61.3)	113.2	-1.8
조제분유	2,354 (81.7)	2,047 (77.6)	1,740 (68.1)	1,624 (59.3)	1,419 (49.8)	1,790 (49.1)	1,480 (37.5)	1,299 (32.4)	1,628 (38.5)	-9.8	25.3

주 1)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2) 괄호안은 영연방 수입액이 우리나라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8년 치즈 수입량은 뉴질랜드산이 가장 많지만, 미국산과 EU산 증가로 점유율은 17.9%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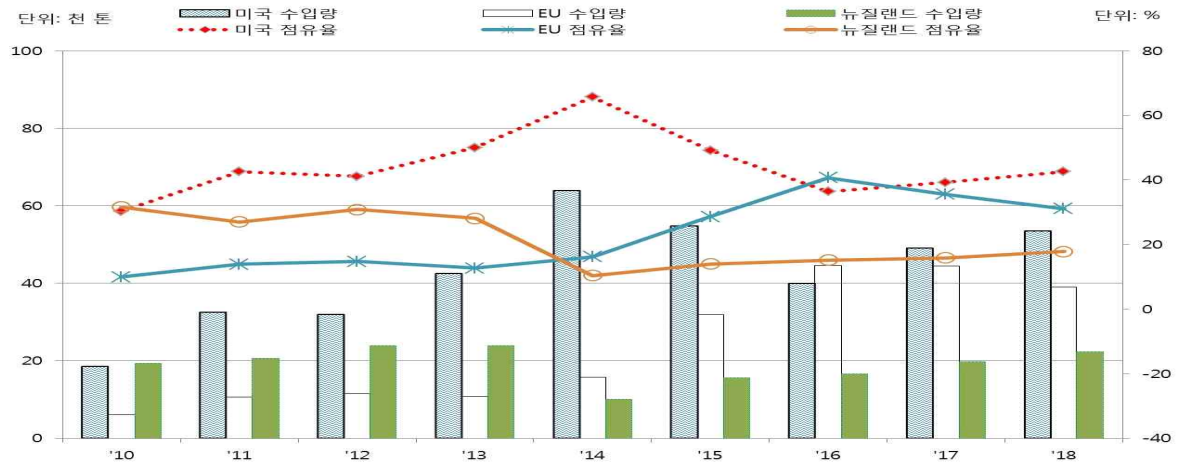
□ 미국산 치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EU산 점유율 증가추세로 뉴질랜드산은 하락추세를 보임.

○ 2018년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량은 2만 2천 톤으로 평년 대비 5.4% 증가한 반면, 점유율(17.9%)은 EU로의 수입선 전환 등으로 5.1%p 하락함.

- 2018년 EU산 치즈 수입량은 같은 기간 256.3%의 큰 폭으로 증가해 점유율이 31.1%로 증가
- 2018년 미국산 치즈 점유율은 42.6%로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1위를 차지

※ 신선·가공·기타 치즈 양허: 호주(36%→20/18년+TRQ), 캐나다: 양허제외, 뉴질랜드: (36%→12/15년+TRQ)
※ 체다 치즈 양허: 호주(36%→13년+TRQ), 캐나다: 양허제외, 뉴질랜드: (36%→10년+TRQ)

〈그림 6〉 치즈 국가별 수입량 및 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8년 쇠고기는 수입단가와 수입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율 감축으로 평균 8.3%의 통관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남.

○ 쇠고기의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평균 12.1% 상승했으나, 통관가격은 관세율 인하로 평균 2.8% 상승에 그침.

-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가격은 kg당 6,684원으로 평년 대비 11.8% 상승했고, 캐나다산(5,784원)은 8.9%, 뉴질랜드산(5,231원)은 15.7% 상승함.
- 호주산 쇠고기의 통관가격은 kg당 8,462원으로 평년 대비 1.1% 상승했고, 캐나다산(7,478원/kg)은 0.6%, 뉴질랜드산(6,764원/kg)은 6.9% 상승함.
- 2018년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율 인하효과는 9.6%,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각각 7.6%로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쇠고기, 돼지고기와 치즈의 통관가격 인하효과는 평균 8.3%, 16.4%와 16.3%

□ 2018년 영연방산 돼지고기는 관세율 감축으로 평균 16.4%의 통관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남.

○ 호주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2.9%와 3.0% 하락했으나, 통관가격은 22.4% 하락함.

- 호주산 돼지고기의 수입가격은 kg당 1,253원으로 전년 대비 3.5% 상승했으며, 통관가격은 kg당 전년 대비 1.4% 하락함.
- 호주산 돼지고기의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는 20.0%로 전년보다 4.0%p 확대되었음.

〈표 11〉 영연방 국가별 품목 가격 변화 추이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평년	2017	2018	평년	2017	2018	평년	2017	2018
호주	수입단가($/kg)		5.40	5.87	6.09	1.18	1.07	1.14	4.53	4.18	4.24
	수입가격(원/kg)		5,978	6,639	6,684	1,291	1,211	1,253	5,027	4,721	4,662
	통관가격 (원/kg)	미발효시	8,369	9,295	9,358	1,614	1,514	1,567	6,836	6,421	6,340
		발효시	8,369	8,584	8,462	1,614	1,272	1,253	6,836	5,364	5,210
	변화율(%)		0.0	-7.6	-9.6	0.0	-16.0	-20.0	0.0	-16.5	-17.8
캐나다	수입단가($/kg)		4.88	4.83	5.27	2.03	2.56	2.79	-	-	-
	수입가격(원/kg)		5,312	5,464	5,784	2,213	2,893	3,063	-	-	-
	통관가격 (원/kg)	미발효시	7,437	7,649	8,097	2,757	3,595	3,805	-	-	-
		발효시	7,437	7,212	7,478	2,757	3,245	3,314	-	-	-
	변화율(%)		0.0	-5.7	-7.6	0.0	-9.7	-12.9	-	-	-
뉴질랜드	수입단가($/kg)		4.07	4.68	4.76	-	-	-	4.35	4.04	4.17
	수입가격(원/kg)		4,521	5,294	5,231	-	-	-	4,831	4,565	4,576
	통관가격 (원/kg)	미발효시	6,329	7,412	7,323	-	-	-	6,570	6,208	6,223
		발효시	6,329	6,988	6,764	-	-	-	6,570	5,338	5,304
	변화율(%)		0.0	-5.7	-7.6	-	-	-	0.0	-14.0	-14.8

주 1) 가격 분석은 쇠고기: 냉장쇠고기(0201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동쇠고기(0202300000), 돼지고기: 냉장삼겹살(0203191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동돼지고기(0203299000), 치즈: 모차렐라·체더·크림 치즈 등 신선·가공·기타 치즈 12개 세번을 대상으로 함.
2)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4년 12월 12일과 '15년 12월 20일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3) TRQ가 포함된 치즈의 경우 TRQ 기준 물량만큼은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가격을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37.6%와 38.4% 상승했으나, 통관가격은 20.2% 상승에 그침.

-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각각 5.9%와 2.1% 상승한 kg당 각각 3,063원과 3,314원을 기록함.
-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는 12.9%로 전년보다 3.2%p 확대됨.

□ 2018년 영연방산 치즈는 관세율 인하로 16.3%의 통관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남.

○ 호주산 치즈의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6.3%와 7.3% 하락했으나, 통관가격은 21.5%의 큰 폭으로 하락함.

- 호주산 치즈의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수입단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관세율 인하로 전년 대비 각각 1.3%와 2.9% 하락한 kg당 각각 4,662원과 5,210원을 기록함.

○ 뉴질랜드산 치즈의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4.3%와 5.3% 하락했으나, 통관가격은 평년 대비 19.3%의 큰 폭으로 하락함.

- 뉴질랜드산 치즈의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환율과 협정관세율 인하로 전년과 비슷한 kg당 각각 4,576원과 5,304원을 기록함.

□ 국내 소비자의 수입 축산물에 대한 평가 결과, 가격과 품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재구매 의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입업체수는 조정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남.[9)]

○ 쇠고기, 돼지고기와 치즈에 대한 구매만족도는 7점 만점 중 각각 4.98점, 4.70점과 4.89점으로 나타났고, 재구매 의향은 각각 5.12점, 4.74점과 4.89점으로 나타남.

- 품목별 가격만족도는 돼지고기가 4.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쇠고기 4.62점과 치즈 3.77점 순임.
- 품목별 품질만족도는 치즈가 4.96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쇠고기 4.77점과 돼지고기 4.52점 순임.

○ 주요 축산물 수입 업체수는 FTA 이행에 따른 국내 시장확대와 소비자 수요 증가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8년 들어 전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와 치즈 수입 업체수는 2016년 각각 365개와 273개에서 2018년 각각 341개와 158개로 감소
- 돼지고기 수입 업체수는 2017년 465개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441개로 5.2% 감소

9)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2018년 5~6월 동안 각 품목별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수입 업체수는 한국소비자원이 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임.

뉴질랜드산 키위 점유율은 증가하는 반면, 아보카도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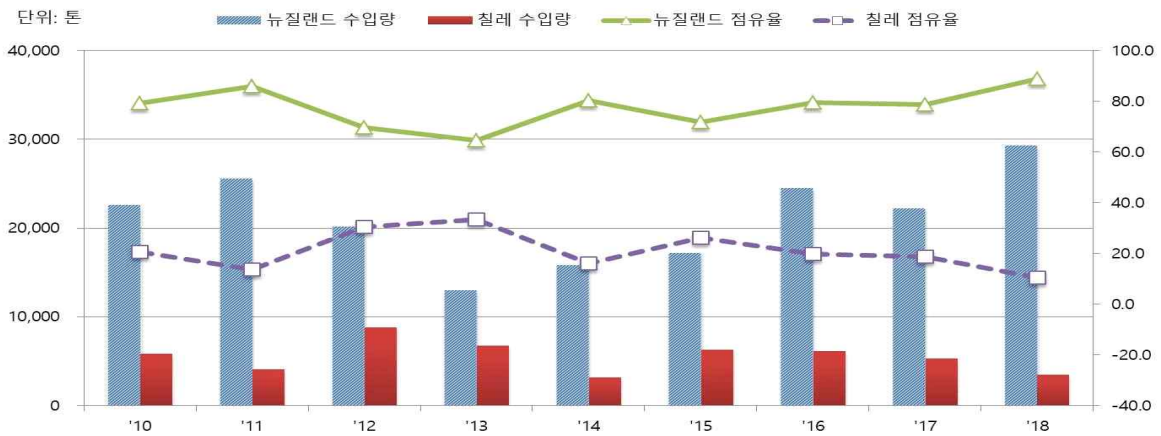
3.2. 주요 과일

□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량과 점유율은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칠레산은 감소추세를 보임.

○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키위와 아보카도 수입량은 협정관세율 인하로 평년 대비 각각 50.0%와 465.7% 증가한 2만 9천 톤과 1,158톤

- 2018년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량은 현지 작황 호조와 품종 개량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전년 대비 31.7%, 점유율은 10.1%p 증가한 반면, 칠레산은 수입량 35.3%, 점유율 8.3%p 감소

〈그림 7〉 국가별 키위 수입량 및 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미국산 아보카도 수입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뉴질랜드산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임.

○ 2018년 뉴질랜드산 아보카도 수입량은 1,158톤으로 전년 대비 32.2%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미국산 수입량(7,991톤)도 급증해 뉴질랜드산 점유율은 4.5%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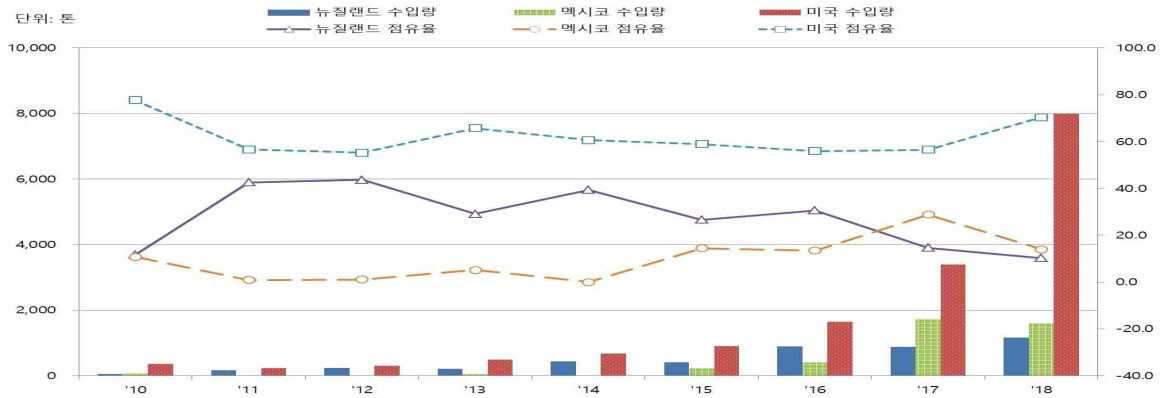
- 미국산 아보카도 수입량은 관세율의 2단계 철폐와 최근 웰빙푸드 소비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6.3% 증가했으며, 점유율도 증가

○ 최근 아보카도 수입선이 미국과 뉴질랜드 중심에서 멕시코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량: 393톤('16년) → 1,721톤('17년) → 1,586톤('18년)

2018년 영연방산 키위, 오렌지, 체리와 아보카도 통관가격 인하효과는 평균 20.7%, 33.3%, 19.4%와 9.2%

〈그림 8〉 아보카도 국가별 수입량 및 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호주산 오렌지 수입량은 평년과 전년 대비 증가, 호주와 뉴질랜드산 체리는 평년 대비 증가한 반면 칠레산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 호주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수입량은 미국산 오렌지의 작황 부진 등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271.7%와 51.9%의 큰 폭으로 증가한 2,678톤

- 미국산 오렌지 생산량: 4,616천 톤('16/'17) → 3,504천 톤('17/'18)

〈표 12〉 영연방 국가의 주요 과일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키위	22,583 (79.2)	25,540 (85.8)	20,139 (69.6)	12,950 (64.5)	15,727 (80.3)	17,126 (71.9)	24,433 (79.5)	22,188 (78.8)	29,218 (88.9)	50.0	31.7
오렌지	0 (0.0)	563 (0.4)	1,590 (0.9)	609 (0.4)	120 (0.1)	876 (0.8)	1,289 (0.8)	1,763 (1.2)	2,678 (1.9)	271.7	51.9
체리	165 (4.3)	159 (3.2)	128 (1.4)	155 (1.7)	133 (1.0)	471 (3.7)	592 (4.3)	269 (1.5)	266 (1.5)	78.7	-1.0
아보카도	53 (11.6)	171 (42.5)	233 (43.7)	210 (29.1)	432 (39.4)	403 (26.6)	893 (30.6)	876 (14.7)	1,158 (10.3)	465.7	32.2

주: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체리(266톤)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수입되고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평년 대비 78.7% 증가했으나, 칠레산 체리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

- 칠레산,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체리의 수입단가는 kg당 8.91달러, 9.62달러와 11.66달러

소비자는 수입과일의 가격보다 품질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재구매 의향도 높게 나타남

□ 주요 과일의 협정관세율 적용 전후 통관가격 변화율은 오렌지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뉴질랜드산 키위와 아보카도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각각 20.7%와 9.2%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2018년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단가는 평년보다 12.7% 상승했으며, 협정관세율 인하폭이 환율 상승폭보다 커서 통관가격은 10.1% 하락

○ 2018년 호주산 오렌지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33.3%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29.4%)에 비해 증가

- 오렌지는 호주산 계절관세율이 적용되는 4~9월 기준 통관가격을 추정함.

○ 2018년 호주·뉴질랜드산 체리의 통관가격은 FTA 발효 즉시 관세율 철폐로 전년과 동일한 19.4%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호주산 체리 수입단가는 평년보다 26.2%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41.0% 하락(수입가격은 26.8% 하락)
- 2018년 뉴질랜드산 체리의 수입단가는 평년보다 15.2%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33.2% 하락(수입가격은 17.1% 하락)

〈표 13〉 영연방 국가별 주요 과일의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

구 분			키위			오렌지			체리			아보카도		
			평년	2017	2018	평년	2017	2018	평년	2017	2018	평년	2017	2018
호주	수입단가($/kg)		-	-	-	1.60	1.71	1.84	13.04	11.63	9.62	-	-	-
	수입가격(원/kg)		-	-	-	1,693	1,930	2,023	14,435	13,153	10,568	-	-	-
	통관가격 (원/kg)	미발효시	-	-	-	2,540	2,894	3,035	40,592	16,310	13,105	-	-	-
		발효시	-	-	-	2,540	2,044	2,023	40,592	13,153	10,568	-	-	-
	변화율		-	-	-	0.0	-29.4	-33.3	0.0	-19.4	-19.4	-	-	-
뉴질랜드	수입단가($/kg)		2.56	2.54	2.88	-	-	-	13.74	12.17	11.66	3.89	5.12	4.86
	수입가격(원/kg)		2,794	2,870	3,165	-	-	-	15,451	13,760	12,805	4,343	5,795	5,336
	통관가격 (원/kg)	미발효시	4,046	4,161	4,590	-	-	-	38,542	17,062	15,878	5,646	7,534	6,937
		발효시	4,046	3,516	3,640	-	-	-	38,542	13,760	12,805	5,646	7,012	6,297
	변화율		0.0	-15.5	-20.7	-	-	-	0.0	-19.4	-19.4	0.0	-6.9	-9.2

주 1)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2) 체리의 가격 분석은 체리(0809210000), 신체리(0809210000)를 대상으로 함.
3) TRQ가 포함된 오렌지의 경우 TRQ 기준 물량만큼은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가격을 산출함.
4)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4년과 '15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2018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밀·보리·대두와 강낭콩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 기타 곡물 수입량은 증가

□ 국내 소비자의 수입 과일에 대한 평가 결과, 가격에 비해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업체수는 조정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남.[10)]

○ 체리, 키위와 오렌지에 대한 구매만족도는 7점 만점 중 각각 4.75점, 4.77점과 4.88점으로 나타났고, 재구매 의향은 각각 4.79점, 4.83점과 5.07점으로 나타남.
- 품목별 가격만족도는 오렌지가 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키위 3.94점과 체리 3.58점 순임.
- 품질만족도는 오렌지와 키위가 4.77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체리가 4.74점임.

○ 주요 과일 수입 업체수는 FTA 이행에 따른 국내 시장확대와 소비자 수요 증가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8년 들어 전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체리 수입 업체수는 2017년 54개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42개로 22.2% 감소
- 키위 수입 업체수는 2017년 22개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19개로 13.6% 감소
- 오렌지 수입 업체수는 2016년 79개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67개로 15.2% 감소

3.3. 주요 곡물

□ 전 세계 밀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밀 총수입량은 감소추세를 보이며, 호주와 캐나다산 수입량은 해당 국가의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 등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감소

○ 2017/18년 전 세계 밀 생산량은 7,631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으며, 2018년 밀 총수입량은 389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
- 전 세계 밀 생산량은 '15/16년 7억 3,842만 톤에서 '16/17년 7억 5,651만 톤, '17/18년 7억 6,306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전체 밀 수입단가는 2017년 kg당 0.23달러에서 2018년 kg당 0.26달러로 13.2% 상승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밀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에서 31.6% 수준을 차지하며, 호주와 캐나다의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평년 대비 36.9%, 전년 대비 6.7% 감소
- 2017/18년 호주산과 캐나다산 밀 생산량은 각각 2,130만 톤과 2,9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1%와 6.7% 감소

10) 과일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2018년 5~6월 동안 각 품목별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수입 업체수는 한국소비자원이 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임.

2018년 기준 영연방 국가의 FTA 이행에 따른 주요 곡물 가격 하락 효과는 밀이 1.8%, 보리가 39.9%, 감자가 18.5%로 추정

- 2018년 호주산과 캐나다산 밀 수입량은 각각 105만 톤과 18만 톤으로 평년 대비 각각 16.5%와 66.6% 감소

> 호주 밀 생산량: 3,182만 톤('16/17)→ 2,130만 톤('17/18), 캐나다 밀 생산량: 3,214만 톤('16/17)→ 2,998만 톤('17/18)

□ 전 세계 보리 생산량 감소에 따라 보리 총수입량과 호주와 캐나다산 수입량이 감소추세를 보임.

○ 2017/18년 전 세계 보리 생산량은 1,4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2018년 보리 총수입량은 24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

- 전 세계 보리 생산량은 '15/16년 1,498만 톤에서 '16/17년 1,471만 톤, '17/18년 1,440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영연방 국가 전체의 보리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에서 7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호주와 캐나다의 생산량 감소로 평년 대비 11.4%, 전년 대비 9.0% 감소

- '17/18년 호주산과 캐나다산 보리 생산량은 각각 890만 톤과 7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1%와 10.6% 감소
- 2018년 호주산과 캐나다산 보리 수입량은 각각 16만 5천 톤과 2만 8천 톤으로 평년 대비 각각 11.3%와 12.5% 감소

> 호주 보리 생산량: 1,351만 톤('16/17)→ 890만 톤('17/18), 캐나다 보리 생산량: 884만 톤('16/17)→ 790만 톤('17/18)

□ 영연방 국가의 옥수수, 귀리, 감자 수입량은 평년과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고, 대두와 강낭콩은 평년 대비 증가한 반면 전년보다는 감소

○ 귀리 수입량은 국내 건강식 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귀리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추세를 보임.

- 2018년 영연방 전체 귀리 수입량은 4만 3천 톤으로 평년 대비 975.8% 증가했고, 우리나라 귀리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6%로 전년 대비 2.9%p 증가함.

〈표 14〉 영연방 국가의 주요 곡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밀	1,681 (37.7)	3,309 (70.4)	2,642 (46.5)	1,180 (25.1)	1,532 (40.6)	1,276 (31.4)	1,200 (26.9)	1,319 (31.1)	1,231 (31.6)	-36.9	-6.7
보리	157 (79.7)	217 (86.2)	241 (83.5)	195 (79.8)	248 (76.9)	236 (76)	159 (67.8)	212 (84.4)	193 (78)	-11.4	-9.0
옥수수	30 (0.3)	49 (0.6)	69 (0.8)	64 (0.7)	59 (0.6)	59 (0.6)	36 (0.4)	62 (0.7)	62 (0.6)	8.0	0.7
귀리	2.2 (78.8)	3.4 (87)	4.0 (87.5)	4.6 (90.4)	21 (93.8)	24 (88.7)	18 (84.8)	24 (90.7)	43 (93.6)	975.8	78.0
감자	11 (13.5)	18 (18.5)	13 (12.2)	12 (9.7)	10 (8.3)	21 (14.2)	34 (22.8)	33 (20.7)	34 (22)	188.4	4.1
대두	5.8 (0.5)	16 (1.4)	10 (0.9)	24 (2.1)	7.9 (0.6)	15 (1.1)	26 (1.9)	16 (1.2)	15 (1.2)	32.1	-6.7
강낭콩	4.5 (32.5)	5.2 (31.7)	4.2 (33.3)	5.1 (38.6)	5.2 (41.4)	4.2 (38)	5.4 (38.7)	6.7 (41.9)	5.7 (42.3)	16.3	-14.8

주 1)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2) ( )는 품목별 영연방 국가 전체 수입량이 우리나라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감자 수입량은 2017년 호주 내 병충해(Potato Psyllid, '17. 2.)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평년 대비 188.4% 증가

- 2018년 1~10월 국산 감자 가격은 kg당 1,835원으로 전년 대비 46.9% 상승

□ 2018년 기준 영연방 국가의 FTA 이행에 따른 주요 곡물 가격 하락 효과는 밀이 1.8%, 보리가 39.9%, 감자가 18.5%로 추정

○ 밀은 호주와 캐나다 모두 밀가루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2015년부터 철폐되었기 때문에 통관가격 인하효과가 연도별로 비슷하게 나타남.

- 호주산과 캐나다산 모두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1.8% 수준의 통관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2018년 호주산 밀의 수입단가는 kg당 0.28달러로 평년 대비 21.3% 하락했으며, 밀가루 협정관세율 철폐로 통관가격(311원/kg)은 평년 대비 22.1% 하락함.
- 2018년 캐나다산 밀의 수입단가는 kg당 0.32달러로 평년 대비 18.2% 하락했으며, 밀가루 협정관세율 철폐로 통관가격(353원/kg)은 평년 대비 20.3% 하락함.

〈표 15〉 영연방 국가별 주요 곡물의 통관가격 변화

구 분			밀			보리			감자(5 ~ 11월)		
			평년	2017	2018	평년	2017	2018	평년	2017	2018
호주	수입단가($/kg)		0.36	0.25	0.28	0.51	0.40	0.40	0.81	0.68	0.74
	수입가격(원/kg)		392	278	311	557	454	443	900	770	816
	통관가격 (원/kg)	미발효	399	283	316	2,234	1,855	1,779	3,635	2,737	3,236
		발효	399	278	311	2,234	1,539	1,383	3,635	2,195	2,426
		변화율(%)	0.0	-1.8	-1.8	0.0	-17.1	-22.3	0.0	-19.8	-25.0
캐나다	수입단가($/kg)		0.39	0.30	0.32	0.65	0.61	0.61	1.23	1.61	1.61
	수입가격(원/kg)		434	334	353	707	688	669	1,352	1,825	1,769
	통관가격 (원/kg)	미발효	443	340	359	2,608	2,546	2,475	1,596	2,154	2,088
		발효	443	334	353	2,608	1,367	1,053	1,596	1,825	1,769
		변화율(%)	0.0	-1.8	-1.8	0.0	-46.3	-57.5	0.0	-15.3	-15.3
뉴질랜드	수입단가($/kg)		-	-	-	-	-	-	5.37	1.45	1.46
	수입가격(원/kg)		-	-	-	-	-	-	6,065	1,636	1,608
	통관가격 (원/kg)	미발효	-	-	-	-	-	-	7,273	1,931	1,898
		발효	-	-	-	-	-	-	7,273	1,636	1,611
		변화율(%)	-	-	-	-	-	-	0.0	-15.3	-15.1
통관가격 평균 변화율(%)			0.0	-1.8	-1.8	0.0	-31.7	-47.6	0.0	-16.8	-18.5

주 1) TRQ가 포함된 호주와 캐나다산 보리('15년부터 적용)는 TRQ 물량은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가격을 산출함.
2) 감자는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율이 적용되는 5~11월 기준 통관가격을 추정했으며, 뉴질랜드의 평년은 '11~'15년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 보리는 관세율 인하에 따라 통관가격 인하효과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호주산은 22.3%, 캐나다산은 57.5%의 통관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2018년 호주산 보리의 수입단가는 kg당 0.40달러로 평년보다 20.7% 하락했으며, 통관가격(1,383원/kg)은 관세율 인하와 TRQ 적용으로 평년 대비 38.1% 하락함.
- 2018년 캐나다산 보리의 수입단가는 kg당 0.61달러로 평년보다 7.0% 하락했으며, 통관가격(1,053원/kg)은 관세율 인하와 TRQ 적용으로 전년 대비 59.6% 하락함.

※ 영연방 국가별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아 포함) TRQ 물량
호주: 10,200톤('15)→10,404톤('16)→10,612톤('17)→10,824톤('18), 캐나다: 15,500톤('15)→15,670톤('16)→17,900톤('17)→19,100톤('18)

○ 감자는 관세율 인하에 따라 통관가격 인하효과가 전년 대비 확대되어, 호주산은 25.0%,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15.3%, 15.1%의 통관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2018년 호주산 감자의 수입단가는 kg당 0.74달러로 평년 대비 8.2% 하락했지만, 통관가격(2,426원/kg)은 관세율 인하로 평년 대비 33.2%의 큰 폭으로 하락함.

04 요약 및 시사점

□ **2018년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입액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출입액은 호주와의 교역량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은 345억 달러로 전년보다 7.1% 증가,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46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전년보다 0.1% 증가,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출액은 2억 7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다수의 FTA 이행과 해당 국가의 작황에 따라서 주요 품목별로 수입창출 또는 협정 체결국 간 수입전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음.**

○ 영연방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미국산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2.6%p 하락, 치즈 수입량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U산 수입 증가로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 수입 전량이 영연방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양고기는 국내 수요 증가와 협정관세율 인하 등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0%씩 증가함.

○ 영연방 키위 수입량은 뉴질랜드의 작황호조와 품종개량 등으로 칠레산과의 수입점유율 격차를 더 확대하고 있고, 국내 수요가 급증하는 아보카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산과 멕시코산 수입 증가로 시장점유율은 감소함.

□ **2018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92.9%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5.1%로 상승 추세를 보임.**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입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대부분 90% 이상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규모가 큰 혼합조제식료품 등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에 따라 전체 활용률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음.

○ 반면,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증가한 반면 캐나다는 감소했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느타리버섯, 팽이버섯과 김치를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 증빙여부에 따라 특혜관세 활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FTA 이행연차가 지날수록 협정관세율 인하폭이 커짐에 따라 통관가격 인하효과가 연차별로 점차 확대되고, 이행기간 동안 TRQ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연방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쇠고기, 돼지고기와 치즈의 평균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는 각각 8.3%, 16.4%와 16.3%, 키위, 오렌지, 체리와 아보카도는 각각 20.7%, 33.3%, 19.4%와 9.2%, 밀, 보리와 감자는 각각 1.8%, 39.9%와 18.5%로 나타남.

○ 영연방 국가별 주요 품목의 평균 TRQ 이행실적('18.1~10월 기준)은 호주 71.1%, 캐나다 47.9%, 뉴질랜드 81.2%로 집계되었으며, TRQ 기준물량의 대부분이 소진됨에 따라 무관세를 이용한 국내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무역구제 대책의 일환인 농산물 ASG 발동 기준물량 대비 수입실적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침.

□ **한·영연방 FTA 이행으로 시장 개방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입전환 효과를 비롯한 FTA 체결국간 경쟁구도가 점차 심화되고, 국내 소비자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만족도 및 재구매 의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농가 및 농업부문 피해에 대비할 필요**

○ 영연방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 FTA 체결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등의 시장정보 수집 강화, 국내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지원 사업, 농축산물 수출 마케팅보드 설립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선 농축산물 생산 및 수출업체, 가공농산물(가공식품) 생산 및 수출업체로 하여금 원산지증명 간소화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